

가구원 합산 재산세 과세표준 12억원 이하면 받는다

1인 가구 연소득 7500만원 기준…금융소득 2000만원 넘으면 제외
직장 가입자 2인 포함 4인 가구 기준 건보료 60만원 이하 지급 대상

22일부터 신청 2차 소비쿠폰 Q&A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2차 소비쿠폰' 지급 신청을 받는다. 소비쿠폰 신청은 시행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토·일요일 모두다.

다음은 정부의 2차 소비쿠폰 지급 기준과 개요 등을 정리한 일문일답.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어느 정도 인지.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정 기준표'를 따른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발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 대상이다. 중위소득 기준으로는

230% 이하다.

-고액자산가 제외 기준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26억 7000만원에 해당한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된다. 금융소득 2000만원은 이자율 연 2% 가정 시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에 해당한다.

-1인 가구 보장은 어떻게 이뤄지나.

▲1인 가구는 청년 세대와 고령층 비중이 높아 다른 가구에 비해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보정했다. 직장 가입자 기준 연소득 7500만원(건보료 22만원)을 선정 기준으로 정했다.

-다소득원 가구는 무엇이며, 어떤 특례가 적용되는지.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인정된다. 모든 직장 가입자는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 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으로 포함된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한다. 예를 들어 직장 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건강보험료 기준액이 4인 가구 기준 51만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원 이하일 때 지급 대상이 된다.

-소비쿠폰 지급 기준의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

▲을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본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된다. 부모·형제자매는 다 주소지에 등재돼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돼 있으면 건강보험과 관계없이 별도 가구로 본다.

-기준일(올해 6월 18일) 이후 혼인·이혼, 출생·사망 등 가족관계 변동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

▲기준일 이후 10월 31일까지의 혼인·이혼·출생·사망은 이의신청을 통해 반영이 가능하다. 기간 내 혼인한 경우 하나의 가구로 적용할 수 있다. 이혼 시에는 주소지와 무관하게 별도 가구로 분리 가능하다. 출생자는 지급 대상에 포함되고 사망자는 제외된다.

-소득 감소 등으로 건강보험료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을 6월 기준 실직, 휴·폐업 등으로 건보료에 반영된 소득·재산이 감소한 경우 이의신청으로 조정할 수 있다. 직장 가입자인지 지역 가입자인지에 따라 신청 절차가 다르므로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앱·고객센터에서 세부 절차를 안내받아야 한다.

-1차 때 출생, 해외 체류 후 귀국 등 사유로 이의신청이 인용된 경우 2차에도 다시 이의신청이 필요한지.

▲사유와 시점에 따라 다르다. '해외 체류 후 귀국' 사유로 8월 29일까지 인용됐거나 출생, 세대 내 미성년자 세대주 변경 사유로 9월 5일까지 인용된 경우 별도 이의신청 재신청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출생으로 가구원 수가 늘어 지급 자격이 변동됐다면 다시 이의신청이 필요하다. 1차에 인용 처리됐더라도 소득 하위 90% 기준을 충족해야 지급 대상이다.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의 신청을 하면 된다. 복무지 지자체에서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으면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소비쿠폰 관련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되는지.

▲소비쿠폰 신청·지급·사용 등의 일반적인 사항은 110 국민콜, 1670-2525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또는 지자체별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건강보험료에 대한 것은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The건강보험), 고객센터(1577-1000)에, 재산세 과세표준 관련 사항은 관할 지자체 세무 부서에, 금융 소득 관련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길 바란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광주신세계 호남권 최초 통삼 매장 오픈

광주신세계 본관 3층 '통삼' 매장 전경. 광주신세계는 지난 12일 호남권 최초로 통삼매장을 신규 오픈했다. 통삼 매장에서는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르 플리아주백'을 직접 착용해볼 수 있으며, 다양한 핸드백 컬렉션 상품들을 만날 수 있다.

〈광주신세계 제공〉

추석 차례상 비용 4년만에 20만원대로…전통시장·대형마트 모두 하락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지난해보다 하락하면서 4년 만에 전체 상차림비가 20만원대로 내려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한국불가장정보(KPI)가 발표한 '2025 추석 차례상 물가정보'에 따르면 올해 추석 차례상 품목별 가격을 종합한 결과 전통시장과 대형마트 모두 차례상 차림비가 전년 대비 하락했다.

전통시장 차례상 비용은 29만 9000원으로 전년보다 3500원(1.2%) 내렸다. 이로써 전통시장 추석 차례상 비용은 올해로 2년 연속 하락했고, 4년 만에 20만원대로 내려왔다.

연도별로 보면 추석 차례상 비용은 2021년 27만 4500원, 2022년 30만원, 2023년 30만 9000원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소비침체 및 고물가가 장기화, 이상기후 등으로 과일·채소류를 중심으로 대

폭 상승했다. 하지만 정부의 지속적인 물가 안정 노력에 따라 과일·채소류 가격이 안정되면서 가격이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다.

과일·채소류 가격이 올 추석에 안정세를 보이는 것은 정부의 물가안정 노력과 함께 지난해보다 낮은 추석 연휴 시기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와 올해 모두 여름철 역대급 폭우 및 폭염으로 과일류, 채소류 피해가 컸고 수급 불안으로 인해 가격이 대폭 상승했다는 점은 같지만, 지난해 추석 연휴는 올해보다 2주정도 빠른 9월 3주차로 여름철 이상기후로 치솟은 과일 및 채소류 가격이 추석 시즌에도 그대로 반영됐다.

반면 올 추석 연휴는 전년보다 늦은 시기 덕분에 여름철 이상기후로 인한 농축산물 가격 상승세가

한풀 꺾인데다, 정부도 이른 시기부터 비축 물량 수급에 나서는 등 발빠른 대처로 물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실제 전통시장 추석 품목 가격들을 비교했을 때, 차례상 필수 품목인 사과(홍로)와 배(신고) 등 과일류 가격이 1년 전보다 33.3%씩 하락했고, 시금치(-25.0%) 등 나물류와 무(-37.5%), 배추(-10.0%) 등 채소류가 전반적인 차례상 비용 하락세를 견인했다.

대형마트에서도 과일류와 채소류를 중심으로 추석 차례상 비용이 하락했다.

올 추석 대형마트에서 장을 봤을 때 국산품 4인 가족 기준으로 산정한 차례상 비용은 39만 1350원으로, 전년보다 2810원(0.7%) 하락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광주은행 민생회복 소비쿠폰 할인 이벤트

GS리테일·BC카드 공동 캠페인

광주은행은 "GS리테일, BC카드와 함께 '민생회복 소비쿠폰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광주시 소재 GS25 및 지역 대표 구단인 KIA타이거즈와 연계해, 생활밀착형 할인 혜택과 다양한 경품을 제공하는 등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촉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됐다.

캠페인은 '할인 넘치는 KIA로운 생활'과 '경품 넘치는 KIA로운 생활'을 마련했다.

할인 넘치는 KIA로운 생활은 광주은행BC카드(신용·체크)를 포함한 BC카드로 광주시 소재 GS25 점포에서 민생생활용품 구매 시 최대 25% 즉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또 KIA타이거즈 홈경기 당일인 '기아 챔피언스 데이'에 민생생활품을 결제하면 추가 10%를 GS ALL포인트로 최대 5000포인트까지 적립해준다.

민생생활용품 대상 상품은 휴지, 라면, 맥주 등 11종이며, 해당 이벤트 기간은 오는 30일까지다.

경품 넘치는 KIA로운 생활은 광주은행 BC카드로 광주시 소재 GS25 점포에서 5000원 이상 결제 및 이벤트 응모 고객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1210명에게 KIA타이거즈 굿즈와 GS PAY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주요 경품으로는 'KIA 타이거즈 동계집퍼 25 어센틱' (10명), 'KIA 타이거즈 홈 유니폼 25 어센틱' (50명), 'KIA 타이거즈 벨크로 모자 25 어센틱' (150명), 'GS PAY 3000원 할인쿠폰' (1000명) 등이다. 이벤트 응모는 광주 Wa뱅크 앱 또는 모바일웹뱅킹을 통해 가능하며, 해당 이벤트는 오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할 계획이다.

송석현 광주은행 디지털금융센터장은 "이번 캠페인은 민생경제 회복을 돕는 동시에 일상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금융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한국 1인당 GDP, 내후년 4만달러 돌파 전망

달성 여부 환율에 의해 좌우될 듯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국내총생산(GDP) 4만 달러 시대는 2027년에야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정부가 지난달 전망한 성장 경로가 유지된다는 것이 전제이며, 다만 원/달러 환율이 지금처럼 고공행진하면 2028년으로 한 해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14일 기획재정부·한국은행·통계청 등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2027년 4만526달러로 사상 처음 4만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1인당 GDP는 지난해 3만523달러에서 올해 3만7430달러로 늘어난 뒤 2026년 3만8947달러, 2027년 4만526달러, 2028년 4만2208달러, 2029년 4만4004달러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새 정부 경제성장 전략'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새로 제시한 성장(명목) 성장률 전망치를 토대로 추산한 것이다. 정부가 전망한 성장성장률은 2025년 3.2%,

2026년 3.9%, 2027년 3.9%, 2028년 4.0%, 2029년 4.1%다.

이를 지난해 성장(명목) GDP 1조8746억달러에 대입해 각 해의 GDP 전망치를 구하고, 이를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총인구로 나누는 방식으로 추산했다.

한국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처음 넘어선 시점은 2016년(3만839달러)이다. 이후 2018년 3만5359달러로 늘었으나, 2019년 3만3818달러, 2020년 3만3652달러로 2년 연속 뒷걸음질했다. 코로나19 등의 영향이었다.

2021년에는 정부의 소비지원 등 경기 부양책과 사회적 거리 두기 완화, 수출 호조 등의 영향으로 3만7503달러를 찍기도 했다.

그러나 2022년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 등에 따른 소비 약화와 수출 둔화 등의 영향으로 3만4810달러로 줄었다.

현재로서는 1인당 GDP 4만달러 돌파 시점은 주로 환율에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숨은 금융자산 18.4조 돌려드려요”

오늘부터 금융당국·금융권 캠페인

고객이 찾아가지 않은 18조 4000억원 규모의 금융자산을 돌려주기 위해 금융당국과 금융권이 공동 캠페인에 나선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전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한다"고 14일 밝혔다.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은 예·적금 7조5209억원, 보험금 5조8506억원, 카드포인트 2조9060억원, 증권계좌 2조686억원 등이다.

금융회사의 고객 개별 안내와 더불어 온오프라인 방식 대국민 홍보를 해 숨은 금융자산 조화·환급 방법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예·적금, 보험금 등 금융자산은 만기 이후에는 적용금리가 점차 감소하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구조"라면서 "만기가 도래한 금융자산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

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을 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에도 노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

■ 로또복권 (제 1189회)							(제 1189회)	
당첨번호							2등	보너스숫자
9	19	29	35	37	38		31	
등위		당첨금(원)				당첨지수		
1	6개 숫자일치	2,263,651,299				13		
2	5개 숫자 + 보너스숫자일치	29,368,730				167		
3	5개 숫자일치	1,571,477				3,121		
4	4개 숫자일치	50,000				152,345		
5	3개 숫자일치	5,000				2,577,694		

15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원서

누적 생산 20만대를 기록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는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올해 두 번째 공채에 나선다.

14일 GGM에 따르면 15일부터 29일까지 지원 원서를 받고 2025년 2차 기술직 22명·일반직 5명 등 총 27명의 상생형 지역 인재를 공개 채용한다.

원서 접수는 채용사이트(ggm. recruiter.co.kr)를 통해 가능하다. 지원자는 원서 접수 후 30일 오후 5시까지 인공지능(AI) 역량 검사를 마쳐야 한다. 이후 서류·면접 전형, 건강 검진 등을 거쳐 11월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GGM은 이번 공채가 지역 경제 침체에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청년들에게 큰 희망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자·건설 산업의 동반 부진과 금호타이어 화재 발생, 여수 석유화학산업단지 불황 등 지역 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GGM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로 상생형 지역 인재를 선발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젊은이들에게 희망을 안길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윤동현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대표이사 등이 지난해 7월 열린 캐스퍼 일렉트릭 1호차 생산 기념식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GGM 제공〉

"GGM에 대한 고객사의 신뢰를 쌓고 추가 인력을 고용해 지역 내 지속 가능한 감소형 기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말했다. GGM은 현대차로부터 위탁받아 경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캐스퍼'와 '캐스퍼 일렉트릭'을 생산하고 있다. 유럽·일본 중심으로 캐스퍼 일렉트릭(수출형 인스터)이 큰 인기를 얻으면서 최근 누적 생산량 20만대를 돌파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